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 600명 대상 성인식 조사 연구보고서 발간

“불편하고 이상한 말, 성폭력 있었어요?”

‘교육 경험있다’ 97%… 이론과 설명 중심 교육 한계
‘도움 되지 않았다’ 44%… 디지털 성교육 목소리 높아

“일상생활 속에서 성폭력이 될 수도 있는데 인지하지 못해서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랑인지 데이트 폭력인지 구별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해요”, “(성교육을 받았지만) 동영상 시청으로 대체하다 보니 친구들이 그 시간에 자요. 기억에 잘 남지 않아요”

청소년들의 ‘성인권’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성 지식과 성별 고정관념 해소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인지 교육, 신체적 변화, 피임도구 활용법 등 실제 필요한 내용들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이론·설명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교육방법의 변화와 함께 주제와 내용도 다

각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최근 ‘제주지역 청소년 성인권 인식조사’(이연화 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도내 청소년들의 성교육 내용을 확인하고 성인권 및 성평등 인식, 성교육 욕구 등을 파악했다. 이를 위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총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 600명 중 대부분인 583명(97.2%)이 성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성인권 교육 운영 횟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로 교내에서 외부 성교육강사로

부터 1년 동안 2~5회 정도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권 교육경험이 도움이 됐는지 묻은 결과 ‘약간 도움이 됐다’가 56.1%로 가장 많았다. 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은 결과 25.6%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혹은 ‘재미가 없어서’(18.0%),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15.0%), ‘일방적으로 강의만 해서’(10.5%)를 선택했다.

또 성 지식·정보 접근 관련 질문에서 청소년들은 ‘학교 성교육’(64.3%)을 통해 가장 많이 배운다고 응답했지만, 과반수 이상인 55.5%가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얻은 성관련 지식에 대해 “유용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필요성이 제기됐다.

디지털 성폭력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약 10%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고 약 5%가 가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단체 대화방에서 당사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이 올라와도 친구들과 함께 재밌어 한다’라는 항목에 21%의 남학생과 12.2%의 여학생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인권 존중 교육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인권 교육 관련 어떤 내용을 배우길 원하는지 묻은 항목에서 청소년들은 ‘성인권, 성적권리 등에 대한 지식’(32%)을 가장 많이 선택한 가운데 남학생은 ‘피임’, 여학생은 ‘평등하고 존중하는 남녀관계’를 다수 응답했다.

연구진은 청소년들의 성인권 인식 및 욕구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보건 및 담당교사와 일반교사 대상 성인권 교육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가시친 정비 환경영향평가
제주도의회 부동의 환영”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가 가시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발표한 논평에서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 것으로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이어 두 번째 사례이자,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사례”라며 “하천정비사업의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낸 굉장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근본적인 침수피해 방지를 통한 재해예방 정책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도민사회에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문제가 되는 하천정비사업들을 즉각 멈추고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기자



“으~~추워” 한겨울 날씨를 보인 4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관광에 나서고 있다. 강희만기자

사회복무요원 8일부터 접수

제주지방병무청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

혔다. 2023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접수 기간 중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지원한 복무기관의 접수 현황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지원 횟수, 전공, 나이 등을 고려해 선발하며 사회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특수학교 지원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전공자를 최우선 선발한다. 선발 결과는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도영기자

검찰, 제8회 지방선거 수사 마무리
오영훈 도지사 등 28명 불구속 기소

도의회 의원 2명도 포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도내 선출직 공직자 3명을 포함해 총 2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28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기소된 28명 중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도의원 2명 등 선출직 공직자 3명이 포함돼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오 지사는 비영리법인 대표 A씨 등과 공모해 지난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경영컨설팅업체 대표인 B씨에게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컨설팅 명목으로 550만원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는 도내 7개 업체를 협약식에 불러 모았는데, 검찰은 해당 기업들이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오 지사의 선거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A씨가 지출한 법인 자금이 오 지사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오 지사와 A씨 등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또 오 지사는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유도하는 등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인 B의원과 초선인 C의원도 재판을 받는다.

B의원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의원뿐만 아니라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 등 캠프 관계자 3명도 함께 기소했다.

C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시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 후보 D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지난 5월 JDC 면제사업본부에 찾아가 명함을 돌리며 선거 운동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제8회 동시지방선거과정에서는 도내에서 54명이 고소·고발됐으며 이는 지난 제7회 선거 때보다 5명 늘어난 것이다.

이상민기자

학생·코치 폭행 혐의 펜싱감독 송치

국가대표 출신 펜싱 감독이 학생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도내 모 펜싱클럽 감독인 A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또 이를 방임한 A씨의 부인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

됐다. 이들 부부는 모두 펜싱 국가대표 출신이다.

A씨는 2021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클럽에 다니는 초등학교 1명과 중학생 1명 등 2명에게 폭언을 하고 발로 차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펜싱클럽 소속이던 코치 2명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현재 A씨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기자

진정한 제주흑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씩음բ, 균형բ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유통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Powerful

용량 : 20kg

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와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균 발달을 촉진함

NAVER D.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기기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완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하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한 향기가 있음.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제라몬

함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절로 평가되는 품종.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카라향, 산화향(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봉,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행자묘목 판매 (신규연 02-0102-2020-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사전에약 주문생산

탐빛1호, 선강, 실통이,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010-4736-2479 / 010-6500-232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로 991번길1(수산리735)